

‘쉽게 가서’ ‘편히 즐기는’ 대회로 승부

경기장 모노레일 노선 연결·다양한 문화행사 마련 등 중요

▣ ‘2009 베를린대회’ 서 배우는 대구시 유치전략

국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특별위원회’ 해외유치단 A팀(박종근·김부겸·장운석 의원)은 5일 오전(현지시각 4일 오후) 독일 베를린 올림픽스타디움 주변에 있는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했다.

해외유치단은 이날 하인리히 클라우젠 조직위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의 타당성을 설명한 뒤 홍보를 당부했다. 이에 클라우젠 사무총장은 “3주 전 대구를 방문해 200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유종하 위원장을 면담했다”면서 “IAAF 집행이사인 헬무트 디겔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에게 국회 특위의 방문내용을 전하겠다. 대구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유치단은 클라우젠 사무총장의 안내로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될 올림픽스타디움을 둘러보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준비상황을 살펴봤다.

#대구가 고려해야 할 5대 포인트

① 무더위 극복방안 모색= 현지 실사단이 지적한 대구 유치의 문제점 중 하나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8월 하순의 대구 날씨가 무더울 것이란 점이다. 베를린 올림픽스타디움에 지붕을 보강한 것처

럼, 대구월드컵경기장에도 직사광선을 막아내는 그늘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② ‘Hospitality Room(일명 스카이박스)’ 설치=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주경기장인 월드컵경기장에도 ‘Hospitality Room’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를 기업활동의 ‘첨병(尖兵)’으로 삼는 스포츠마케팅 전략 중 하나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VIP 고객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위 입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대회운영비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 큰’ 고객을 미리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

③ 대중교통 수단 강구= 주경기장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베를린 올림픽스타디움의 경우 전철역에서 400m, 기차역에서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월드컵경기장에는 현재 지하철역이 없는 것이 취약한 점이다. 대구시가 검토하고 있는 모노레일 노선을 대구월드컵경기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④ 공연장 등 문화시설 확보= 선수는 물론 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 베를린 올림픽



하인리히 클라우젠 200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왼쪽에서 세번째)이 국회 특위 해외유치단에게 올림픽스타디움 일대의 지도를 설명하고 있다. 앞쪽 벽에는 200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공식포스터가 붙어 있다.

스타디움 인근의 숲 속에는 야외음악당이 있다. 주요 스포츠 이벤트가 없는 경우라도 매년 15차례 안팎으로 고전음악에서 팝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연주회가 열리고 있다. 특히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비중있는 대회가 열릴 경우에는 대회기간 내내 연주회가 이어진다고 한다.

⑤ 경기장 주변 미디어센터 설치= 현재 거론되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미디어센터의 입지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다. 그러나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종합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에서 모든 경기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주경기장 인근에 미디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경기결과 및 장면이 전세계로 타전되는 데 효과적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김상진기자
sjkim@yeongnam.com